수출입이 자유로운 홍콩의 인삼유통

홍콩지사

보양식으로 인기 만점인 인삼

• 중화권에서는 건강을 위해 의약품보다 한약재 등의 식재료가 더 많이 소비되는 편이다. 특히 인삼은 의학적 효능에 대한 신뢰를 얻으면서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식품으로, 원기회복이나 체력증강을 위해 평소 식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1

2

3

1.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
2. 홍콩에서 인기몰이 중인 인삼차 제품
3. 인삼을 넣어서 만든 홍콩식 보양 수프

4

5

6

7

4. 약재상이 몰려 있는 셩완지역
5. 약재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6. 크기 및 가공형태가 다른 미국산 인삼
7. 6년 근 한국 고려인삼

독점 대리점 통해 주로 유통

• 홍콩 내 인삼 유통경로는 다른 제품에 비해 폐쇄적인 편이며, 대부분 독점 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된다. 인삼 취급점은 약재상 골목으로 유명한 셩완(上環, Sheung Wan)에 밀집되어 있으며, 제비집이나 동충하초 등과 함께 도·소매로 판매된다. 홍콩 사람들은 주로 약재상에서 인삼을 구매해 탕이나 차 등으로 음용하며, 음료·절편 등의 가공제품은 대형 유통매장이나 프리미엄 슈퍼마켓,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과세율 0%를 활용한 유통 허브

• 홍콩의 인삼과세율은 0%로 통관 시 수시검사만 통과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인삼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된 인삼은 홍콩에서 가공·포장 등의 단계를 거쳐 중국, 대만, 동남아 등지의 인근 소비시장으로 재수출되고 있으며, 건강보조식품과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홍콩 내수시장으로도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

• GTA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홍콩의 인삼류 총 수입액은 USD 2억 9백만 달러(약 2,259억 원)로, 약 70%가 캐나다 제품으로 USD 1억4천5백만 달러(약 1,630억 원)이며, 한국제품은 USD 1천5백5십만 달러(약 174억 원)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홍콩의 국가별 인삼 수입금액 (단위 : 천불)

국가	2015	2016	2017
캐나다	213,259	207,390	145,366
미국	45,291	24,248	33,879
한국	34,058	16,936	15,525
중국	13,810	9,640	9,828
기타국	4,291	4,048	4,670
합계	**310,709**	**262,262**	**209,268**

출처 : GTA(Global Atlas) HS code :121120

인삼수출시 중의약 조례 개정안 검토해야

• 하지만 홍콩에서는 인삼이나 기타 한약재 등 중성약*을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때문에 지난 3월, 홍콩정부는 중의약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중성약' 정의를 명확히 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중성약 제제」 첨부 표에 수록된 제제 명칭과 「약용 중약재」 첨부 표에 수록된 물질이 함유된 것을 중성약으로 분류했다. 또한 제품에 인간의 질병이나 증상을 진단, 치료, 예방, '완화시킴' 혹은 '인체 기능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쓰임' 등 의료와 관계된 표시를 하는 제품을 중성약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해 현 법규의 불완전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 **중성약 :** 한약재를 원료로 규정된 처방과 생산기술, 품질표준에 따라 먹기 편하게 환이나 가루, 알약 등으로 만들어 처방하는 제품으로 우황청심환이 대표적인 중성약 제품.

• 따라서 인삼제품이 약재에 해당할 경우 수입약품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한국업체는 제품의 명칭 사용이나 효능표시에 유의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중의약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 * 좌담회 관련 내용은 홍콩 보건부 산하 중의약 사무부 홈페이지 (http://www.cmd.gov.hk)에서 확인할 수 있다.